

## 제23회 국정과제회의 및 오찬

### ‘2만 달러 시대’ 든 국가경쟁력이든 인재양성과 기술혁신이 핵심전략

인재 수요자인 기업과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다른 방향의 교육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학계 사이에 수요와 공급을 논의, 조정, 통합할 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같은 기구는 정부가 주도해서 시작하고, 시작되면 경제단체와 대학에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에서 성공하고 있는 대학의 특성이 무엇인지 분석해 다른 대학들이 공유하고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학교육은 더 자율화되어 다양하고 개방된 형태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지원방식도 더욱 다양화해야 합니다. 지역단위의 산학협력정책을 기획, 조정할 협의체도 필요하며 여기에는 지방의 대학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대학이 지역사회를 주도하고 실천의 주역이 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정부와 산업계 사이의 협력을 위한 모임이 만들어지면 구체적 방안에 대한 실무적 토론을 하고 그 결과가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이나 학교에서 ‘내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길이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만으로는 안 되니 대학, 경제단체, 기업에서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안을 내주셔야 그것을 정리하면 구체적 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 얘기가 나온 지 얼마나 됐는지 까마득합니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총론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봐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안된 이유를 찾아내 제거하고 부분적이라도 성공한 이유를 찾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업에서 산학협력에 대해 별로 답답하지 않았거나 답답한데도 그 중요성에 대해 크게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문자로서 기업이 나서줘야 합니다. 교육의 한 분야를 맡는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만 달러 시대’ 든 국가경쟁력이든 인재양성과 기술혁신이 핵심전략입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다른 분야 모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패를 좌우하고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